



## 내게 일일이 다가오는 것 그저 근본에다 맡겨놓으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천도를 스님네들한테 청하되 무엇을 많이 차려놓는 걸 바라지 마십시오. 찰쌀가루를 해서 재사 지낼 때 툭그렇게 그냥 부쳐서 아홉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세 조각 이렇게 해서 놓고, 초 향 물 이렇게 해놓고 지내신다면 그것으로써 족합니다. 환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나물 먹고 떡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하는 의식들은 벌써 그건 아주 하의 중생들의 애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떡, 밥에서 헤어지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 의식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마음속으로 예배를 올리면, 그리고 절 삼정례(三頂禮)를 할 때에, 맨 꼬트머리에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내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놓고 일어난다면 아주 그것이 극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천도를 시켜달라고 할 때 스님네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물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외국에서 천도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초하고 물하고 향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라도 되는데 그거라도 방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저녁에 틀림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벌써 영령들은 알거든. 그렇게 해서 지내주고 다녔지. 그 뭐, 다니면서 목탁 들고 다녀, 무슨 뭘 들고 다녀?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국에서 천도해 달라고 보내도 "알았다."고 그게 천도지 뭐 다른 건가. 내 마음이면, 이 마음이라는 이 자체는 아주 작다면 작고, 없다면 없고,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아.

그러나 그 관습에 젖어서 무슨 이사를 갈래도 못 가고 날짜를 봐야 하고, 제사를 지내도 왕창 차려놓고 해야 하니까 "아휴, 그냥 바쁘기는 한데 이런 거 해야 하고 아휴, 제사가 왜 이렇게 많아?" 하고 그냥 잔소리 잔소리 최할 거 다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군소리 할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그리고 정성은 정성대로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처럼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에. 그러나 시대가 발전이 되고 과학, 의학 모든 것이 발전이 된다 하면은 우리 인간도 좀 달라져야 그 발전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발전이 돼야 모든 게 물질도 발전이 돼서 나오죠. 마음의 발전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이 발전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남):** 오늘 네 가지씩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것 외에는 별도의 수행 방법을 강조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선이 좋은 수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생활이 곧 참선이다 하는데, 과연 생활 중의 모든 언행을 곧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얼른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곧 참선이라는 스님 말씀의 참뜻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아이 참. 그저 평상시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건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면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오. 일상생활의 일거일동 말입니다. 이 세상이 형성된 것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 전체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니까? 자기,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내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알아도 참선이요, 서로 참선이요, 누워도 참선이요, 또 일을 해도 참선이요, 행선·와선·입선·좌선 다 한데 합쳐서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일상 생활의 모든 걸 내 마음속에서 한다, 그냥 듣고 내는 것이 한마음이다 이런다면은, 그냥 거기가 놓고 돌아가면은, 믿고 놓으면은 그냥

이것저것 따로따로 챙길 게 없이 그대로 놓고 가면 그것이 참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렇게 놓는 반면에 그렇게 놓고 지켜보고, 지켜보는 게 바로 관하는 겁니다. 지켜보고 체험하는 그것이 참선입니다. 뭐 별다른 게 참선이 아닙니다. 내게 일일이 다가오는 거 그저 거기가 맡겨놓고... 즉 말하자면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봤는데, 차가 망가져도 운전수 탓이고, 차가 바껴도 운전수 탓이지, 차를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 차 운전수 불되고 야단이지. 하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몸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운전수. 그러니깐 그 운전수가 모든 걸 해나가는 거니까 운전수에다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그냥 모으고 안 모으고도

없어요. 거기 놓고 그냥 돌아가는 그것이, 그리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나 몰라라 거기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이라고 가도 아니 되고, 허허허.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가고 오는 것도 다 너만이 알고 너만이 몰라라 타지게 할 수 있어. 이끌어가게 할 수 있어. 이끌어갈 수 있어.' 하는 거지.

**질문자(남):** 두번째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여유하게 자유인으로 행하라는 뜻으로 사려되옵나니마는 그렇다면 마구니가 온다 해도 막지 않고 부처가 간다 해도 붙잡지 않는 것인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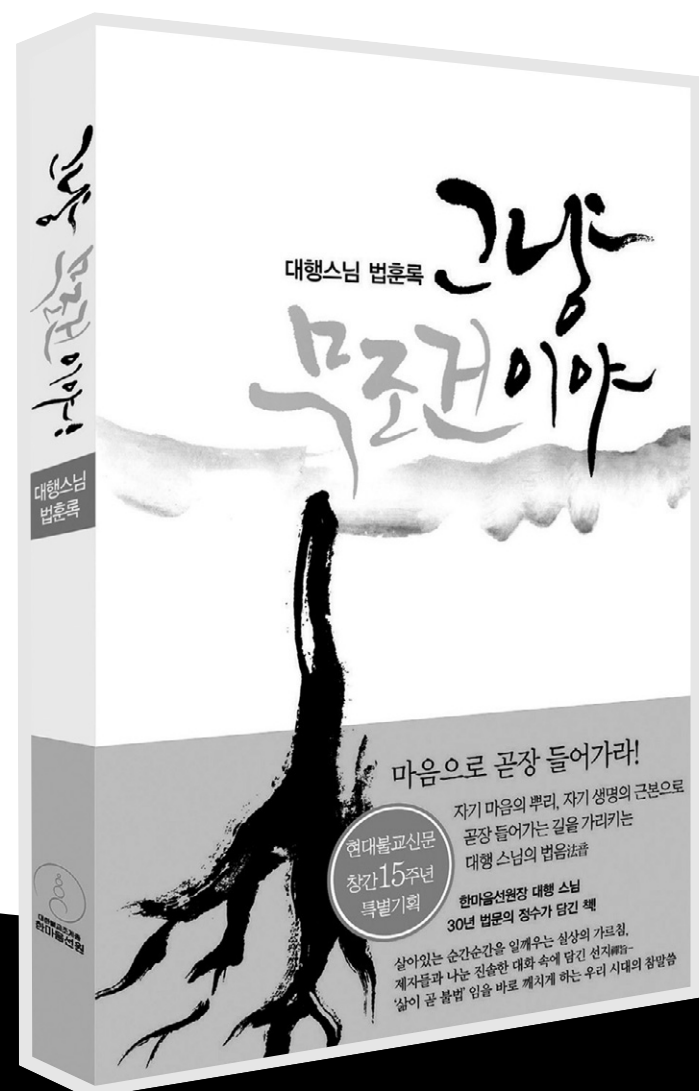
**큰스님:**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요. 가는 것 일부러 그냥 쫓아가서 잡고 이르기보다는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고 무조건, 하다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고 또는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든지, 하다못해 소를 한마리 잡아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그 도리를 납득을 못합니다.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 이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 즉 말하자면 지금 말했듯이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 안 된다. 그냥 놓고 가는데, 그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도중의 수행자는 그렇다 이겁니다.

**질문자(남):** 세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에 맡긴다, 주인공을 관한다고 할 때에는 맡기는 자와 맡는 자, 관하는 자와 관하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주인공'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관하는 줄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공' 자주 생각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여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큰스님:** 그렇게 누가 상대를 두고 해달라고, '주인공 해주시오.' 하라고 했습니까? '네 몸통이 내가 고장 났으면 내가 고쳐서 끌고 가라.'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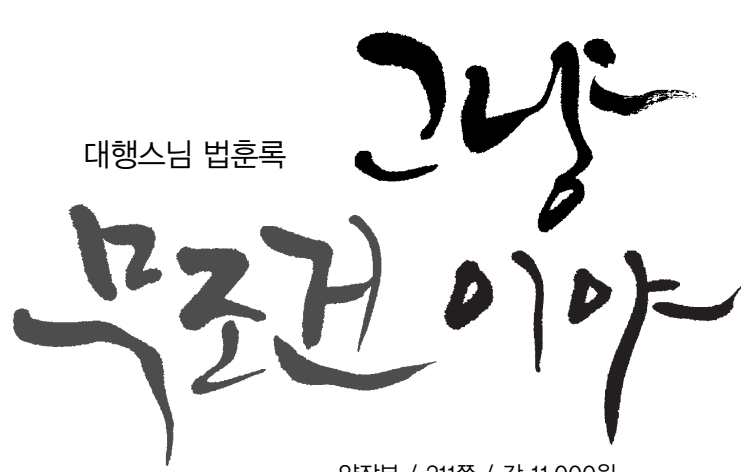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쪽 / 값 11,000원

# 가는것도 오는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야단법석입니까

29면에서 계속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아니 '네가 잘못했으면 내가 해결해라.' 그리고 놓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네가 벌여놓은 거니까 내가 수습해라.' 하고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그것이 마음 없는 마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모두를 돌로 보지 마세요. 이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해달라고 한다면은 아니 됩니다. 그거는 벌써 잘못 들어가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이 이렇게 만든 것도 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너니까 네 몸뚱이 내가 끌고 가려면 건강하게 끌고 다녀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놓을 수 있고, 그 놓을 수 있는 마음이 믿음직해야 됩니다. 그냥 장난기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그런 거는 핀트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보지 말고 열심히, 어떠한 거든지 돌로 보지 마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드렸습니다.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광력을 찾고, 이 모든 진화를 찾고 형상을 찾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 자체를 볼 때에 만나서 헤어졌으면 또 단결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해왔으니, 지금 생각을 현대도 어떠한 부모가 됐을 때 부모라고 하고 어떠한 자식이 됐을 때 자식이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거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말합니다.

**질문자1(남):** 내번째는 오조 흥인 대사께서 육조 스님께 의발을 전하신 뒤 길을 떠나라고 하시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몸을 화(火)자가든 고장에서는 머물고 모을 화(會)할 때는 감추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인 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큰스님의 뜻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큰스님:** 이거를 뜻으로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는 그건 자기가 가는 거지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음에 뿌리와 나무 가지, 잎새, 열매가 모두 익어서 제대로 맛을 아는 자에게, 그 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행해주고, 즉 행하고 거기 머무르고, 또 그냥 걸탕으로 이렇게 모일 때는 감추어라.

즉, 자기가 행하지 마라 이 소립니다. 이게 이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는,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에게는 머무르지만 이게 걸탕으로 모여서 흥이나 하고 그러는 자에게는, 걸탕으로 하는 자에게는 아예 말문을 열지 마라, 감추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 어디 간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해라. 그 자리가 바로 네 자리니라." 이런 거거든요. 말은 할 줄 몰라도 뜻을 알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러게 이 마음공부를 이끌어가는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알고보면 오히려 더 쉬운 일이지. 세세생생에 깃달리고 돌아가면서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도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이 오신통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훌쩍 벗어난다면 견우와 직녀 속에서 훌쩍 벗어나는 겁니다.

**질문자2(남):** 지난번에 주지 스님께서 울산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적에 불상인 부처가 탁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건너는데, 한길을 건너는데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 '이게 뭐냐.' 하고 찾으려는데, 계속 찾으려는데 못 찾았습니까. 오늘 들어와 찾았습니까.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엄마가 저를 낳고 일찍 세상을 버렸습니까. 그게 한

그게 도로를 건널 적에 부처가 나타난 거하고 그때 '불쌍해라, 불쌍해라' 한 그 소리가 '불상을 내가 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큰스님:** 하하. 그것도 아니에요.

**질문자2(남):** 그것도 아닙니까? 그러가지고 쪽 있다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 네 소원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가만히 연관시켜보면 그것도 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내가 불법을 늦게 만났더라도 이 길을 난 분명히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가지고 가정 정리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돼갑니다. 이제.

**큰스님:** 이제 보세요. 앞의 거를 해결을 못하고, 저 면데 거를 해결을 하려면 안 되십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갈 거는 간다 하더라도 지금 막에 가족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뭘 찾으러 가십니까?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럼 그럴 것도 없습니다. 잘하고 가시지요.

**질문자3(남):** 저는 지금 자연과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자연과학을 공부하다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불법을 통해서도 진리를 얻는 방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큰스님:** 이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야. 어떠한 별레도 생명이 있으면 불이야. 그래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운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법이야. 생활이 그냥 법이야. 그러니까 불법이야. 너의 생명 근본, 영원한 근본, 근본이자 생활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 생활을 벗어나서 불법이 있을 수가 있냐? 모두가 불법인데.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지, 그러다 인간까지 발전이 된 거지. 그래서 인간은 맨 나중에 나왔다 하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불성 없는 것은 없어. 생명이 있다 하면은 다 불성이 있는 거지.

**질문자3(남):** 알았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이런 겁도 이것이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이 되고 인연이 돼서 이것도 살아 있는 거지. 컵이라는 거를 봐주고 써주는 인연이 있고, 물을 담고 이렇게 써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 있는 거죠.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거예요. 움죽거리고 있다고요.

**질문자4(여):** 오늘 스님을 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어렵습니다. 스님, 조금만 용기를 좀 주십시오.

**큰스님:** 몸하고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물론 이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허황돼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맡겨놔 버리고 그대로 '네 몸뚱이, 네가 형성시킨 네 몸뚱이 내가 끌고 다니는 건데 건강하게 끌고 다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놓고 가는 길이지 뭐, 공부하는 데 무슨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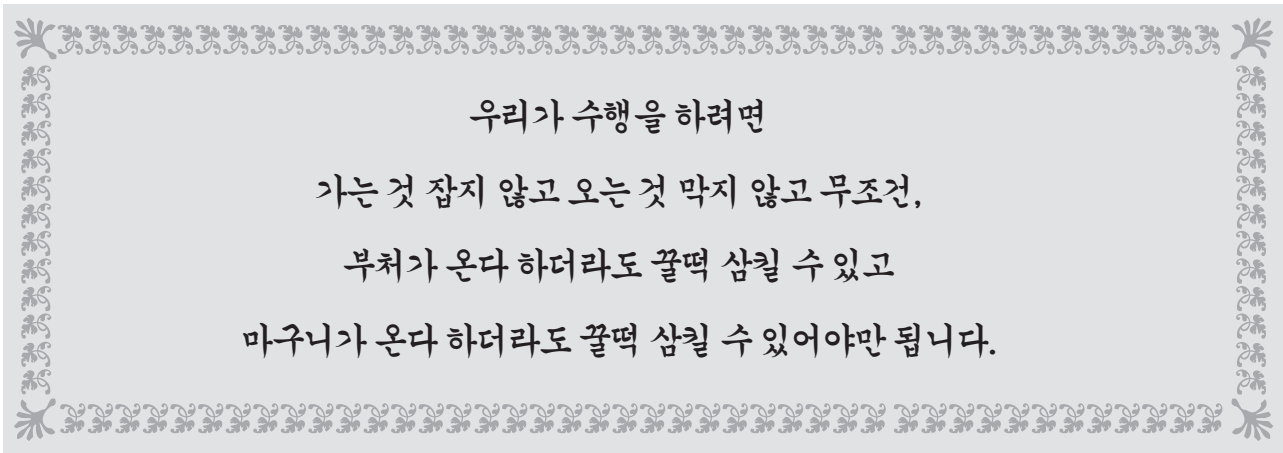
**질문자4(여):** 예, 조금만 용기를 주십시오.

**큰스님:** 용기를 누가 주고 자시고 할 겁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재료로 알고, 어떠한 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해 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지 않게끔 벌어질 겁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인도하신 이 마음의 공부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체험하고 나가다보면은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다 써놓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여러분, 모두 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살아 나가는 데 어떠한 고통, 어떠한 병고, 어떠한 재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모두 커버해나가면서 내 진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열심히 하십시오.

※ 위 법문은 92년 8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살쯤 되었습니다. 그래 한 네 살쯤 돼서 혼자 걸어나면서 놀았어요. 노는데 새로 처녀가 시집을 와서 나를 키웁니다. 이제, 키우는데 노는 걸 보면 혼자면서, 누가 꼭 돌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가보면 혼자 있는데 얘기는 둘이 한다 이거야. 아, 이게 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알았다 이겁니다. 집안에서는 엄마 없이 혼자서 큰다고 맨날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거야. 맨날 불쌍해라, 불쌍해라 이거야.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아, 그거를 이 도리를 오늘 스님한테 받아 듣지 못하였으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돌로 안 보고 하나로 딱 붙적에는 전부가 나의 화신이요, 보살이라 미리미리 보여줬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맞습니까?

**큰스님:** 하하하. 예.

**질문자2(남):** 어쨌든 간에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있었는데 '불쌍해라, 불쌍해라' 하는 게

**질문자2(남):** 아뇨. 곧 다 됐습니다. 스님은 여기 앉아서도요, 우리집 행랑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 그리고 그 마음에서 지금 그러한 도리를 아신다간 망정이지, 만약에 화(化)해서 자꾸자꾸,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다 남편이 됐다 이러듯이 그 마음속에서도, 이 주인공속에서도 그저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에 자꾸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질문자2(남):**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두 남매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모릅니다. 부야를 둔어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내 생각을 했습니다. '요놈, 또 내 화신(化身)들이 나를 속이는구나.' 하고 돌리니까 조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큰스님:** 하하하. 예, 참 잘했습니다.

**질문자2(남):** 오늘 배터리 보충 못들어지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백지 한 장에 그림 한 장 그려가지고 울산에서 팩스로 보내

**질문자3(남):** 그럼 다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문명을 받기 전에 불성(佛性) 그 자체가 있었다고 배웠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불성 자체로 보면 그것도 불성입니까? 애초에 불성 자체로 볼 때요, 그것 자체에도 불성이 있는 겁니까? 애초에 있었던 불성.

**큰스님:** 불성이라는 것은 어느 것에도 불성이 없는 게 없어. 우리가 이 세상 나가 전 암흑 세계에서도 이 바람과 흙과 물과 이렇게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거야.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인연이 된 거야. 삼합(三合)이 한데 합쳐지자 거기서 온기가 생기니까 불도 거기서 그냥 생긴 거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생긴 거지. 한데 합쳐서 생명이 생긴 거야,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생기니까 광력을 얻은 거야. 그래서 광력이 얻어지니까 그 생안이 된 거지. 미생물에서부터 생안이 돼가지고 그 수없이 겪어왔잖아. 뭐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공룡시대, 무슨 시대 하고 겪어오면서 발전이 된 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 30권 중 제 22권 출간! 전통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 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명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깊이를 역할하고 있다.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님바나** **화계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결!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라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며,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후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숲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불교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채성박사 후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 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님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지리산 토암사** 검색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